

전남 드라마세트장 돈먹는 애물단지로

나주·완도·장흥 등
수백억 들여 앞다퉈 조성
운영비 감당 못한채
아까운 혈세만 낭비

전남도와 각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드라마 세트장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드라마 방영과 함께 1~2년 반짝 특수를 누리지만 종영 후 급세 잊는 드라마 특성상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등 아까운 혈세만 까먹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여수(드라마 '선택')·순천(빛과 그림자 등)·나주(주몽)·완도(장보고)·장흥(신의) 등 각 지역에 5개의 드라마 유치하고 모두 300억원(도·시·군비)을 지원했으나 순전을 제외한 이들 세트장 대부분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혈세만 축낸 채 방치되고 있다.

나주는 지난 2005년 9월 도비 24억 8500만원과 시비 146억1100만 원 등 모두 20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나주영성테마파크를 조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연간운영비는 3억5900만원이지만 수입은 고작 1억1200만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완도는 지난 2004년 11월 도비(25억원)·군비(25억원) 등 150억원을 들여 청해진포구세트장을 건립했지만 연간운

영비 4000만원 대비 수입은 3100만원에 불과해 일부 세트장(신라방)을 철거했다. 지난해 연간방문자 수도 4만119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유지관리비 문제로 아예 세트장을 철거한 지자체도 있다. 여수는 지난 2005년 1월 시비 2억원을 투입, 드라마 세트장을 지었지만 유지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2014년 12월 철거했다.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해놓고도 개장조차 못한 곳도 있다.

장흥은 지난 2010년 10월 도비 24억원과 군비 24억 원 등 총 72억원을 투입해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사실이 확인,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2년이 넘도록 개장조차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이 드라마 세트장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이유는 각 지자체 등이 구체적인 사후 활용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세트장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트장 건립은 단체장 치적쌓기 홍보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트장의 경우 드라마 방영 당시에만 잠깐 관광지로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 향후 매년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해선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산업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더민주 광주 워크숍...호남민심 돌아설까

1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중민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상호 원내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3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야권의 잠룡들이 앞 다투어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한 호남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3 총선 지면 유세 과정에서 '호남 민심의 지지가 없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문 전 대표가 이날 광주를 방문,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9~10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바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신안군 하의도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

야권 잠룡들 오월 광주로

문재인·안철수·박원순·손학규·안희정·송영길
5·18 기념식 맞춰 방문...대권 행보 시동 '눈길'

과 함께 17일 전주에서 워크숍을 한 뒤 광주로 이동, 전야제와 18일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한다. 5·18 행사를 참석한 뒤에는 고흥 소록도로 들어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행사에 참석, 한센인들과 만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광주 방문을 계기로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곽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13일에는 오전 일찍 망월동 5·18 묘역을 참배하고 전남대에서 특강도 한다. 여기에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고 오월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5·18 관련 일정도 치른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진에 침겨 중인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은 18일 오전 광주로 넘어와 일부

지지지들과 함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손 전 고문측은 해마다 5·18 때이면 광주를 방문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야권 안팎에서는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가 점차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 전 고문은 광주 방문 직후 일본 게이오대 특강을 위해 출국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18일 정부 공식 행사에 참석한 뒤, 재래시장인 '1913 송정역 시장'에 들러 현대화사업 성공사례에 대한 점검 작업을 벌인다. 일각에서는 안 지사가 호남의 바다 민심에 다가서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당선인도 더민주 당선인 워크숍 참석차 광주로 내려온 뒤 18일까지 광주에 머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5억원을 들여 조성한 나주영성테마파크.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에서의 제창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에서의 제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념식에서의 제창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던 보훈처는 '한 개의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여론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5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와 유선

리얼미터 조사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54% 찬성 한다는데

여론 귀막고 억지 부리는 보훈처

전화(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p),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3.5%로 '반대'(29.4%)보다 월등히 많았다. '잘 모름'은 7.0%였다.

리얼미터측은 "지난 2013년 5월 9일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43.2%, 반대 의견이 29.4%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

번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약 10% 포인트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 55.2%로 '반대'(26.2%)를 압도했다. '잘 모름'은 18.6%이었다.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서 들었던 '찬반이 팽팽한 국민 여론'

이 아닌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보훈처 관계자는 "단 한 개의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입을 위한 행진곡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경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9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문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문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문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문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